

March 26 십자가, 죽음이 시작이다

• 마태복음 21:1-11

기독교 영성의 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리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무리는 가난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떠올렸습니다(눅 9:9).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펑박받고 박해당하는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고난보다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니 고난에 동참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 서였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눅 9:51).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호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향해 가는 첫걸음, 곧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죽으라!’ 죽는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죽음으로부터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은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 ❶ 부활보다 십자가가 먼저임을 깨닫습니까?
- ❷ 죽음으로부터 나의 사명이 시작됨을 깨닫습니까?